



女友야, 나오너라! 다같이 풍류여인

고민하지 마세요!
9월 24일부터 27일까지 연세 교정 곳곳에서 열리는
제4회 가을여성제 "風流女人-女友야 나오너라 다같이 풍류"가 있습니다.
모두들 함께 뛰고 땀 흘리며 즐겁고 유쾌하게 한판 들어봐요~

| 북동전야 | 개막제, 중도앞 민주광장에서, (9월 24일 12시)
| 비람소녀 국장에 가다 | 영화제, 제2인문관(위문관)B09홀에서, (9월 24일~25일)
| 약자지(G) | 요란번석 시상식, 중도앞 민주광장에서, (9월 25일~27일)
| 비람소녀! 춤버림 나다 | 멋진 힐링 맨스 강좌, 노전극장 연습실에서, (9월 25, 26일)
| 연세야, 이제 나를 응원해봐 | 피아티니 대운동회, 대강당 앞, (9월 26일)
|女友야 나오너라 토크이 가자 | 여성 문화제, 100주년 기념관 앞에서, (9월 27일 6시)
| 여홀야, 너 거기 있었니? | 문대 여성모임 모반의 행사
외출관 지하 여학생휴게실, (9월 24~25일)
| 나는 어떤 타입의 동물여인일까 |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사회대 공동체 beyond
백양로에서, (9월 25일~27일)
| 광장으로 나온 여홀 | 여홀만만 프로젝트팀
중도앞 민주광장에서, (9월 25일~27일)



제4회 여성제 풍류여인 기획단

마음놓고 뛰어본 것이 언제였지?
예전엔 나도 내 친구들이랑 땀 흘려가며
코린이 새까맣을 때까지 뛰어 놀았던 것 같은데,
지금은 대강당 앞에서
응구응 피해가기 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네.

앞장서서 즐겁게 놀아본 것이 언제였지?
나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분위기 주도하며
사람들 즐겁게 했었는데,
지금은 아카라카도 뒤편에서 지켜보고 있네.
아닌데, 나도 잘 볼 수 있고 앞장서서
유쾌한 분위기도 만들어갈 수 있는데,
마상 이제는 그럴 자리가 없네..



"바람소녀, 극장에 가다"
 24~25일 (6시 ~)
 제2인문관 (위당관) 1309호



요진 상경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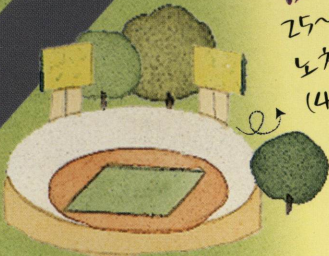


연세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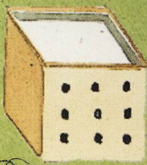


본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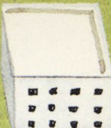
"바람소녀! 춤바람나다!"
 25~26일
 노천극장 연습실
 (4시 ~ 6시)



"여휴야, 너 거기 있었니?"
 24~25일 외솔관 지하 여학생방화계실
 (11시 ~ 6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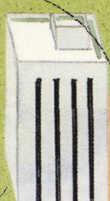


**"나는 어떤 타입의
 풍류여자인지?"**
 25~27일 백양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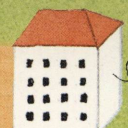


백양관

"왕자지킴이"
 25~27일 중도 앞 민주광장



요진 중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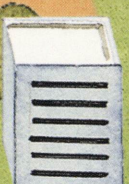


요진 대강당

**"연세야,
 이제 나를 응원해봐"**
 9월 26일 대강당 앞 (12시 ~ 2시)



요진 학관



요진 공대



요진 백주년기념관

**"女友야 나오너라,
 달맞이가자"**
 27일 100주년기념관 앞
 (6시 ~)

정문

